대한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신임회장

조 종 수 (주)서한 대표이사

"건설명가대구의재건을위하여혼신의힘다할터"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환갑을 넘는 62년의역사와전통을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어려운 시기에중책을맡게되어무거운책임감을 동시에갖고있습니다."

대구 건설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년6월까지3년간이조직을이끌게 되는 조종수 회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 건설 경기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경제의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건설업이살아나야지역경제도살아난다는신념에따른것이다. 조종수회장은"대구건설업계의역동적인활동은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대구를선진일류도시로발돋움시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

조종수 회장은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대·중소 업체간의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회원사들대부분이기업규모가작아대형공사수주는물론 공동도급마저 쉽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지역 건설업이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지역건설업계에가뭄의단비가될것으로기대하였던4대강살리기사업도대구의 경우 낙동강에 접해 있는 부분이 적어 1,900억원에그칠것으로전망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조종수 회장은 적정 규모 이하의 공공공사는 중소 업체가 도맡아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을비롯한각종대형 프로젝트에 대·중소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절실하다고토로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이대구 건설업계에실망을주었다면지난달최종후보지가 결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합쳐 총 5조 6,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각지자체들이그동안쟁투를벌여결국 충북과대구시가사업유치에성공했다.

조종수회장은대구신서혁신도시에40만 평규모로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를개발하는 데 1조3,00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첨단의료복합단지가 4대강살리기사업을제치고대구지역건설업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에서1조3,000억원이면새로운신도시를 하나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입니다. 게다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그에 필요한 각종 민간 공사 물량도 창출되어지역건설업계에커다란도움이될 것으로기대됩니다."

조종수 회장은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사회 각계각층의 변화와 개혁 바람에 맞춰 발전적인 협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상응하는 능동적인 협회가 되도록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990년대'건설 명가 대구'를재건하기위해신선한변화와바람을일으키도록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를 위해 조종수 회장은 먼저 '대구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업체의애로사항을대변하고제도개선및 일자리창출에전력을기울일생각이다.

건설인들의 자부심 고양과 공정한 경쟁 질서 정립도 조종수 회장이 앞으로 실천해 나갈과제들이다. 그는특히건설업체들이4대강 살리기 사업,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개최와국가산업단지조성등에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건설인들의사기가많이꺾여있는데대해분발을 촉구했다."우리건설인은두말할나위없이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 질서가확립되지않아비리의온상으로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 '나'보다 '우리'를 먼저생각하는자세로회원들과고객들을만나고 협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건설업에대한'긍정의바이러스'가널리퍼져나갈것으로확신합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